한국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그 역사와 현재의 위치

추광영

한국에 있어서의 신문학 연구는 이때 일기계에 울려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차츰 보강되어 가고 있는 이 분야 연구자들과 성숙되어 가고 있는 연구 분위기로 비추어 보다 앞으로의 한국 신문학계는 본격적 성숙과 개화의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의 한국 신문학회는 회원이 120여명에 달하여 연구자의 수에 있어서도 개화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게해 주며 연구분야 및 경향에 있어서는 규범적 사변적 또는 역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Journalism, 구조주의, 부사학 등 저항적인 사주학파와, 미국식 과학적·경험주의적 학파가 공존하여 본격적인 신문학의 성숙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오늘의 한국 신문학이 있기까지의 거나은 역사를 전년식으로 개관하고 현실점에 있어서의 한국신문학계의 연구동향을 간략히 분석해 본으로서 한 과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I.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역사적 발전

한국에서 신문학의 학술적 연구와 외국의 신문학 이론의 도입 및 체계화가 시작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의 발단은 해방 직전 이전에 독일에서 신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였던 김성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본격적으로 대학에서 신문학을 전공하여 1928년 '라이프저널'대학교 신문연구소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대학에서 사회학을 강의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한국에서는 신문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일본의 점령하에 있던 한국의 상황 속에서 학문적 연구가 제약받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한 학문적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고, 이러한한 제도도 양기치 못하였다.

그 후에 한국인으로서 해방전에 대학에서 신문학을 전공하였던 사람들로서 해방후 한국의 대학에서 신문학을 강의하였던 대표적 사람들은 국립대학교 신문학과 출신의 고종산, 고종헌, 이재필 교수들이 있다. 이들은 해방후 한국의 신문학 교육과 연구 일선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해방 이전의 한국 신문학은 "신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의 전술이 있었을 뿐 본격적인 학술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1. 형성기 (1945—1962)

해방이 되면서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학문, 교육의 자유를 허락하게 되자, 한국의 언론계는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와 수단한 언론인의 교육, 변론이 큰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건에 따라 "조선신문학회"(후에 "서울신문학회"로 개칭됨)이 1947년에 설립되어 왔다. 이 회의 첫 회장으로 선출된 신문학자들은 학계와 언론계의 발전을 목표로 하여,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 중 한 사람으로는, 1947년 "조선신문학회"의 출범을 주도한 고 교수를 들 수 있다. 고 교수는 당시의 학계와 언론계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1947년 "조선신문학회"를 설립하여 제 1기의 수업을 전개하였다. 제 2기부터는 1년으로 연장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조선신문학회의 교육과정은, 신문학과 언론 및 실전공부를 결합하여 진행되었다.

조선신문학회의 설립이 한국의 신문학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언론인의 양성을 위한 신문중심의 교육의 시행으로 보아, 신문학 교육의 기초를 닦았고, 저널리즘 및 신문학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를 마련했다고 봄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하여, 조선신문학회는 15년에 걸쳐서 약 1천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 배출된 조선신문학회 졸업생들은 그룹은 한국 언론계의 중심으로 평생의 무수한 언론인들과 경부 관리들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문적 교수는 어려운 시기에 조선신문학회를 창설하여 많은 언론인을 배출하는데는 성공하였지만, 그의 꿈이었던 이 학원의 정규대학으로의 승격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과 교수는 해방 후 저널리즘 교육에 불을 붙인 신구자신들에 틀림없다.

1950년대에 들어들면서 한국의 각 대학에서는 "데스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을 결합하여 늘리게 되었다. 그러하여 서울대학교 문리대학은 국내 최초의 신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학문적 교수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하였다.


1957년부터 1963년까지 서울에 있는 4개의 종합대학교에 신문학과가 설치되었는데, 이 4개 대학 신문학과의 창설 교수로서 참여했던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과 경향성을 상위보면 196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 신문학의 특성을 설계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참여했던 교수들로
서는 고택성, 츠쓰, 이세창, 이도수, 김원수, 김정연, 송호도 등이 있는데, 송호도 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문에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들이었다. 그중 고택성, 이세창, 박용봉 교수는 모두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출신이며 또한, 이세창 교수와 박용봉 교수는 1950년대와 60년대 초에 걸쳐 독일에 유학하여 신문학을 전공했다. 특히, 서울대학교에서 신문학을 전공했던 3교수들은 모두 일본 신문학 비호의 불리온 소설과, 쇼김 교수의 세계적으로 일본의 학문적 관리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절대적 영향을 받았었던 것이다.

그들은 신문을 다른 사회현상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였기 때문에 이들의 신문학은 종은 의미의 신문학으로서 곧 신문지식이었다. 그러므로, 초창기 한국 신문학계의 연구들은 신문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평적인 글들과 신문학의 학문적 성립에 필요한 기본적 개념의 소개의 시도에 그쳤고, 신문의 역사에 대한 연구, 신문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문제를 대체적으로 역사의이고 규범적인 연구가 도가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2. 경향주의의 도입기 (1963—1970)

초창기의 도입기를 거쳐 한국의 신문학은 1960년대에 이르면서 외면적 측을 확대하고 절차 변화를 달성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신문학이나 공시학과는 학문적 판과 있어서 서로 구별되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귀국하여 교단에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며, 신문학과 및 연구소들이 대학에 속속 창설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에 귀국한 학자들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의 메스컴학까지 도입한 김광선이나 이동주, 대학 출신의 김영진, 김현, 송창호, 조용식, 송범일, 이육자 등이었다.

한국의 신문학 연구는 1963년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의 창립과 더불어 일제 강점기의 분위기를 달이게 된다. 이때부터 일본 및 독일 전통적인 한국의 신문학은 미국 중심의 커뮤니케이션학과 접촉하여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과 사회과학적 서사학적인 측에서 실증적으 로 연구하려는 노력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의 창설과 더불어 그 다음에부터 내용론이나 사회학적 역학적 연구가 이 연구소의 기관지인 『신문연구소 학보』에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소의 연구활동은 1967년 제 1집(1964)에서 그동안의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회고 및 발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로 앞으로의 커뮤니케이션 학의 나아가기 를 천명하였다.
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또 그에게야 하겠다는 전전적 의의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러나, 매스 커퓌리케이션 연구의 더욱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영역, 예전에 전기한 바와 같이 인
간행사와 커퓌리케이션의 관계, 정신병용의 의학적 명령에 대한 연구가, 소득의 수 신자에 대한 압력(impact)의 성과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 매스 커퓌리케이션 연구에 있어서 근본적
과제는 커퓌리케이션과 그와의 이익적 사회적 현실 및 활동형태간의 체계적 관련성의 종류 및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中略) ..... 한국의 매스 커퓌리케이션 연구는 여전에 출발점은 낮은 단계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두 가지의 여정을 급선무로 하여야 하겠
다. 하나는 매스 커퓌리케이션 연구 분야에 대하여 인지과학적으로부터의 다른 같은 연구가 있어야 하
겠고, 다른 하나는 경향적 데이터를 계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매스 커퓌리케
이션의 가능, 과정, 과정, 효과에 관한 이론의 체계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1968년에는 서울대학교에 신문대학원이 설치되어 그와 더불어 신문학 연구는 더욱 진이
를 성확시켰고, 1970년부터는 수많은 신문학 학계의 논문들이 대학원에서 발표되는 가
운데 신문학에 있어서 유효적·현장주의적 연구방향은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때 신문
대학원의 교수진용은 보편적 신문학을 공부한 김덕성, 박영중 교수도 있었으나, 사
회의 지급한 한-식, 이성희, 김영호 교수, 실내학을 전공한 신용식 교수, 최명신 교수, 정치학을 전
공한 김명 교수 등이 있었다. 신문대학원의 이러한 교수진용에 보통은 한
국의 신문학이 중대한 점의 과학적 전문학을 빼어나 커퓌리케이션과 학문조직에 정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커퓌리케이션과학의 성립과정이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문대학원
의 이와같은 교수진용 구성은, 김규환 교수가 앞에서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인지과학적으로
부터의 측면은 중요하나 바탕으로 중대한 커퓌리케이션을 저항하고 있었음을 알어볼 수
있다.

이 시기를 정후하여 서울 시내의 각 대학들에서도 경제의 중요한 의미의 신문학을 빼어나
현대적 커퓌리케이션 과학과과학에 타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주로 미
국에서 흔히받은 학자들이 많이 귀국하게 되었다. 시라큐스에서 방송을 전공하고 귀국한 김
규환 교수, 보스턴대에서 메스컴이론을 전공한 송천우 교수, 시라큐스출신의 부의 교수, 캔디
포나리출신의 이원수 교수 등이 있었다. 따라서, 신문학의 연구 영역이 확대, 변천되게 되었
을 뿐 아니라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와 중대의 규범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태
도 대신 과학적·현장주의적 연구방식을 공학적으로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3. 학문적 도약기 (1970년대 이후)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 신문학계는 그간의 역량적을 기반으로 본격적 정착 및 학
문적 도약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부터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학도과
정에 신문학과가 창설되었고 대학원에서의 연구활동도 활성화 강화되어 나갔다. 이때부터
새로이 창설된 신문학과에 강의를 담당할 교수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와 범용
감이 함께 미국에서 카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한 소장 학자들이 대거 귀국하기 시작하였다. 이
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젊은 학자들이었다. 이들로서는 차재근 교수, 박
준식 교수, 김종일, 이용래, 홍성복, 김상현, 이규환, 김일성, 이광실이 있다. 앞에서
의한 바 있는 한국 신문학의 전역변화는 이러한 젊은 학자들이 자신들의 전
적분야를 잃지 않게 강화함으로써 더욱 촉진되었다. 이들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의
한 카뮤니케이션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연구프로그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전개하였을
뿐 아니라 매스 카뮤니케이션, 저널리즘, 방송론, 국제 카뮤니케이션, PR론, 인간 카뮤니
케이션, 대중문화론 등은 유행한 분야로 각각의 학문적 분야에 따라 한국의 카뮤니케이션
연구영역에 수용시킴으로써 연구대상의 폭을 크게 넓히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 동시에 60년대까지 주류를 형성하였던 신문론 연구대상, 언론제도 및 언론의 자
유와 책임에 대한 규범적 연구도 1970년대에 들어와서 첨단기에 접어 들었던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구되었다. 다만, 이러한 주류적 연구영역이 지배하던 카뮤니케이션학 연구프로그램에
점유주의적, 선명한 연구 방법론의 도입과 새로운 카뮤니케이션 모델과 이론이 도입
되어 한국신문학의 연구추세가 보다 균형이 되고 다채로워졌다.

그러나 그와같은 연구도 wors하다 학계에서 개발된 모델을 한국의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시
켜 본다면 혹은 대변하는 모방적 연구단계를 빼어나는 것은 못되었으며, 독자적 이론철학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한국적 사회구조에서 저명적인 카뮤니케이션 현상을 발견
해 내고 이들 다시 설명하려는 이론적 토착화를 위한 독자적 이론개발을 의도한 단계까지
발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신문학계에서 앞에서 논의한 사회과학적 연구영역
점유경향이 보다 보편화되고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학계의 연구영역에서도 2세대
들의 전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주로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졸업생들로 구성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박은규, 임영식, 윤영해, 정대호, 이재성, 정성진, 박
선우, 박재성, 박종국, 김도현, 이재문 교수들이 있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 후반
부터는 정극학을 비롯한 저방학자들도 총속 신문학과가 장내되었는 사실도 드러남
한다. 이 시기의 귀국한 교수들로서는 서울대의 오석수, 박명진 교수, 서울대의 프랑스, 고시과학,
고시과학, 오백성 교수, 취리한 대학의 이기현, 중앙대의 정철, 정순철 교수들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신문학계는 직접적 연구에 있어서 연구분야에 있어서나 보
다 다양하고 두꺼운 총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하여, 현재 한국 대학의 신문학과에서
신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전문적 연구인력은 70명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II. 한국 신문학 연구의 현황

지금까지 한국의 신문학 연구가 어떠한 발달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가에 대하여 주로 현대기적로 기술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 수년동안의 한국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학의 주요 연구분야는 어떠한 영역들이 계획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는 일은 앞으로의 발전을 기약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연구 수준에 대한 숙련한 반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 같다.


発表자이론연구들은 1980~81년에 발표된 글들 중에서도 학술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연구논문에 한정시켰고 1980~82년에 발표된 학위논문은 모두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논문의 수는 2년간에 걸쳐 85편이었고 단행본이 13편 그리고 학위논문이 72편으로 총 169편이었다.

이러한 논문들은 신문학의 주요 연구분야별로 나누어 본 결과는 <표>와 같으나.
<br>〈표〉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의 한국 커뮤니케이션학 연구는 매스컴 이론과

<table>
<thead>
<tr>
<th>분야별</th>
<th>학술논문</th>
<th>저서</th>
<th>학위논문</th>
</tr>
</thead>
<tbody>
<tr>
<td></td>
<td>정수</td>
<td>% 순위</td>
<td>정수</td>
</tr>
<tr>
<td>매스컴 이론</td>
<td>29</td>
<td>34.2</td>
<td>1</td>
</tr>
<tr>
<td>저널리즘</td>
<td>15</td>
<td>17.6</td>
<td>3</td>
</tr>
<tr>
<td>역사</td>
<td>16</td>
<td>18.8</td>
<td>2</td>
</tr>
<tr>
<td>광고 P.R.</td>
<td>8</td>
<td>9.4</td>
<td>4</td>
</tr>
<tr>
<td>국제 Comm.</td>
<td>8</td>
<td>9.4</td>
<td>4</td>
</tr>
<tr>
<td>조직 Comm. interpersonal Comm.</td>
<td>1</td>
<td>1.2</td>
<td>3</td>
</tr>
<tr>
<td>사상철학</td>
<td>3</td>
<td>3.5</td>
<td>0</td>
</tr>
<tr>
<td>공리이론</td>
<td>2</td>
<td>2.4</td>
<td>0</td>
</tr>
<tr>
<td>계</td>
<td>85</td>
<td>100.0</td>
<td>13</td>
</tr>
</tbody>
</table>
저널리즘의 압도하고 있다. 이 두 분야를 합하면 무려 전체의 60%에 접근하고 있고 그 다
음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 분야는 역사의 연구와 광고・P.R. 분야, 그리고 국제 커뮤니케이
션 분야의 순이며, interpersonal 또는 human communication 분야나 조직 커뮤니케이션 분
야라든지 독일의 Publizistik학 연구에 있어서는 극심한 연구부재 현상을 나타내고 있을음을
볼 수 있다.

2년동안에 발표된 학술적 가치있는 연구논문의 절수가 85편에 불과하여 극히 저조한 연
구활동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연구분야에 있어서의 원중현상까지 극심하
며, 중요한 연구분야로 인식되어야 할 interpersonal communication이라든지 조직 커뮤니케
이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완전한 실패에 놓여 있다.

이에 주요한 연구분야들로 극히 개략적으로 연구자와 연구주제도를 소개하여 보고자 한다.

(1) 매스컴 이론

이 분야는 역시 한국의 신문학의 가장 지배적인 연구대상이며 주로 매스 미디어의 영향
력과 수용자에 대한 효과로 분석에 대한 연구로 대표되어 나타난다. 〈표〉에서 분석될 학
술논문과 저서를 중심으로 이 분야의 연구내용과 관련학자들을 언급해 보자로 한다.

 먼저 이 분야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연구대상은 매스 미디어에 대한 수
용자의 접촉도라든지 매스 미디어의 영향, 매스 미디어의 이용도 분석들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 연구자로는 송숙재, 유재천 등이 눈에 띈다. 다음으로는 정치적, 전
략적 여론조작의 문제를 다루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는데 이경희, 金勇炫등이 이기간에 저
작을 남겼다. 김철현, 최창성의 교육매체 연구가 발전되고 점차이론을 소개한 차수진의 글
이란데다, 영상커뮤니케이션 분야를 한국에 소개하고 있는 박철권 교수의 글들도 지적해
두고자 한다.

(2) 저널리즘 연구

한국 신문학에 있어서 두면제로 활발한 저작활동이 이루어져고 있는 분야는 저널리즘 연구
이다. 이 분야는 주로 매스 미디어에 대한 영향성이나리라든가 특정 매스 미디어에 대한 사
례연구나 비교연구, 출판 미디어현상에 대한 연구로 대표되고 있다. 영원순의 인류학 연구
나 추상의 및 김진호의 국가적 특성과 언론 통제의 관계 연구, 박영선의 한국 신문에 대한
문화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눈에 띄고 경성수의 북한 방송실선통도 연구와 이분야의 연구로서
흥미롭다.

(3) 역사연구

앞에서 언급한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이겠지만, 역사적 연구는 한국 신
문학계로서는 가장 전통적인 연구여서 역사적 연구도 가장 오래되었고 일찍도 활발할 만하다. 최
근에 이루어진 주요 연구결과는 주로 한성순보, 조보, 독립신문, 밀성신보 등의 한국의 신
문계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 연구 뿐만 아니라 신문발달사적 측면에서 의외의 신문과 한국
의 발달과정을 비교한 것이라든지, 우리나라 초기 민문에 보급된 외국뉴스에 대한 문해 등 추체도 다처무고 내용도 짜리있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분야에는 경질적, 차배근, 박정규, 최준 등을 위시한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4) 국제 커뮤니케이션 연구

국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70년대를 정점으로 제3세계와 서방환경사이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소위 NWIO운동에 자극받아 한국에 있어서는 비교적 연구열한이 많은 분야이지만, 서로 최근 크게 연구실태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하여 국제간 뉴스흐름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고, 서구와 제3세계 사이의 이념적 논쟁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는 현상기술에만 그치고 이론경리의 토대가 결코 결실화작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상에 도달하지 않고 있으며, NWIO운동에 관한 연구가 많지만, 그 진단적 보다는 연구대상의 목표는 확대적이 많다 하겠다. 즉 종속이론에 입각한 문화적 제국주의 문제에만 연구자가 집중하고 있을 뿐, 보다 광범한 연구가 이는 inter-cultural 또는 cross-cultural한 시각에서 연구관심분야를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다.

NWIO 운동 및 문화적 제국주의론에 있어서는 서양주의, 막연상 등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 interpersonal communication 또는 human communication 연구

이 분야가 현대의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세상 급조대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 커뮤니케이션학계에서 이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볼 때, 아직 한국 신문학계의 연구인력이 얼마나 번역하여, 경제적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학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무리 최근 발표된 학문논문에서 지도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접속한 실질에 놓여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신문학의 연구분야의 확대가 보다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 기간에 발표된 학술논문으로는 김종욱이 인터뷰를 하나의 personal communication 과정으로 파악하고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조영현이 언어 성격학 임상에서 언어와 사고의 발달의 상관성을 연구하였고, 차배근이 수용자의 피질특성에 대한 이론들을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 고작이다.

보다 광범한 학자층의 육성이 시급한 분야라고 하겠다.

(7) Publizistik학 연구

Publizistik학 역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에서는 한국신문학계의 초창기 원로들의 연구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 분야를 전문화한 원로교수들이 거의 은퇴하였기 때문인지 그나지 발달하지 못한 분야가 되고 있다.

다만, 70년대에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한 이정춘 교수와 김정근 교수에 의하여 학맥
이 유지를 하고 있다.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의 내용의 비유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연구분야라고 하겠다.

III. 결론

한국에 있어서의 신문학은 조창기부터 주로 메스 미디어 중상자들의 관심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고, 그 결과로서 그는 의미의 신문학에 이르는 신문지학으로서 발달하게 되었다. 그것은 또한 한국의 신문학이 독일과 일본 중심의 협의의 신문학을 공부한 조창기 연구자들에 의하여 강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3년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의 창립을 계기로 비로소 실증과학적 접근방식이 적용되는 이론과 실증적 이론 도입기를 거쳐 연구방법과 연구자야의 전환을 겪게 되었다. 그 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어 1968년 서울대학교 신문학회의 창립을 계기로 본격적 학문세력으로서 한국에서 자리잡게 되었다. 그 후 차츰 보강되는 연구인력과 전통 각학의 신문학과의 설립은 한국 신문학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생각컨대 한국의 신문학은 이제 정착의 단계를 거쳐 미래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인다. 한국 신문학계는 그동안 저속적인 성장과정을 겪어 오면서 규범적 Journalism학과, 구조주의, 공식학 등의 서구중심 학파, 그리고, 미국식의 경험주의 학파를 그 내부에 공존시키고 있다. 이제 미국식의 실증적·경험주의적 연구방법은 한국의 신문학계에 도입이 완료되었고, 이러한 방법론을 앞세운 접근방식은 오히려 과거에 한국 신문학 연구의 중심을 이루었던 규범적 방법론을 통한 접근방식보다도 더 큰 세력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신문학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연구대상 또는 관심분야가 지역히 제한되어 있다는 성찰을 받칠 수 없고 연구 인력 역시 아직 충분한 것이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므로, 연구자들의 전문적 관심영역을 확대시키고 보다 활발한 학문적 토론과 연구분위기가 전개될 수 있을 때 한국 신문학은 전개한 성공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